

---

# 한국의 약학의 역사

1817 송윤지



# 01

약학의 기원

1



# 02

고대의 약학

2~3



# 03

고려시대의 약학

4~5



# 04

조선시대의 약학  
관련 인물

6~7

## 2 약학의 기원



동물도 병이 생기면 치료본능을 발휘하여 외부의 상처이면 헛바닥으로 핥고, 속이 거북하면 풀을 뜯어 먹어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아무리 원시시대라고 하여도 질병에 대한 치료본능이 없었을 리가 없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의 주변에서 먹을 것을 찾게 되고, 또 자연의 섭리가 먹을 것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이 생기면 주변의 자연물 가운데 병을 고치는 약이 있게 마련이다. 어느 민족이나 약을 처음으로 개발한 약조신을 가지고 있지만, 꼭 어느 한 사람이 약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오랜 원시시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본능적 직관과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의 축적이 드디어 약의 체계를 세우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고려시대

사람으로 전화되기를 원하는 곰과 호랑이에 게,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치성을 드리라고 한 기록으로 보아서 환웅이 백성들의 병을 주관하는 동시에 쑥·마늘 등을 이미 약으로 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신라의 처방전, 진명방

신라의 약: 신라국 진명의 처방

윤공천황의 왕후, 소도오시노이라츠메(衣通郎女)의 인후(咽喉)에 병이 난 것을 치료하는 약이다.

대화국(大化國) 고시(高市) 가다(加多)의 신사(神社)에 전하는 것이다. 두통과 목 안의 염증으로 아파 음식을 먹을 수 없고 고열이 나면서 땀은 없으나 오한이 들어 괴로운데 대한 약.

구수가두량(九壽加豆良: 갈근), 원미나가두량(袁美奈加豆良: 궁궁), 아보가통량(阿保加通良: 방기), 지파지촌내미(支波知寸乃美: 무궁화), 만두보도(万豆保度: 복령), 야좌나지(也左奈支: 버들), 비이양지(比以良支: 황금, 일명 속색은 풀), 파자가민(波自加民: 생강) 이상 8가지를 [결락(缺落)]

9세기 초 편찬된 의서 『대동유취방』에 남아 전해고 있는 신라 의상의 처방전은 이름하여 '진명의 처방'이다. 신라의 의학은 중국의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한 두가지의 약물을 처방하는 단방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 약재를 법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계

상약국에서 납약, 가루약물을 제조하고 있었으며 그 기술이 중국보다 100여 년 앞서 있었다. 또한 상골의 제법은 고려에서 시작하여 그 제법이 중국에 전해졌다고 《신수본초》에 수록되어 있다.

중국 측의 문헌에 남아 있는 기록 가운데 인삼, 오미자, 계, 우 등 삼국시대의 약품류가 소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우리나라의 약재물산이 중국에 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미자

#### 04 고려시대의 약학

고려의 약학은 개국 초에는 신라약학의 계승이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영향으로 시작되어 송나라 및 원나라의 문화를 섭취하였으나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고려약학을 발전시켰으며, 특히 대륙산 수입약재 대신 국산약재를 사용하여 전통성이 강한 향약방과 향약본초를 발전시킨 것을 특징으로 한다.



향약구급방

현존하는 한국의 의학서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저자 미상의 책. 향약(鄕藥)이라는 뜻은 한국에서 나온 약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대로 고려시기에 중국에서 난 약재는 당약(唐藥)이라는 표현을 썼다.



향약구급방에 수록된 약재 향명 중 연근

## 향약방이란?

고려시대 당시, 중국의 의학과 고려의 의학이 가지는 차이점에 따라, 고려의 실정에 맞춘 독자적인 처방법이다. 질병들에 대한 처방법과 함께 질병에 대한 국산 약재에 대한 소개도 함께 되어 있다.

상/중/하 세 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권에서는 주로 식중독, 졸도, 골절과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법을 다루고 있으며, 중권에서는 화상, 동상, 종기와 같은 각종 피부 질환 및 당뇨, 심장병, 복통과 같은 내과 질환에 관해서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하권에서는 부인과 및 소아과 질환 및 각종 한약재의 동시복용 허용 여부와 민간요법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세종

1450년(세종 32)은 조선문화의 융성기를 대표하는 시기이며 정치·경제의 확충, 문화의 융성을 이룩하였으며, 의·약학도 전무후무한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나라 의약의 최고봉을 이룬 시기이며, 의약학을 국정에 적합하도록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약학제도의 정비 확충을 비롯하여 의·약학의 장려책을 강구하였다.



동시에 향약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세워 의료의 자주화를 이룩하였다. 세종 때에 이르러 약재의 명나라 의존을 탈피하고, 자주적 약재공급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약재수입에 따르는 국비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자국민의 병치료에는 자국민의 체질에 적합한 자국산 약재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토성(宜土性)을 내세워 향약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향약의 재배와 증산 및 자급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허준(許浚, 1539년 ~ 1615년 10월 9일)은 조선 중기의 의관

동의보감을 작성하였으며, 동의보감 외에도 선조의 명을 받아 임진왜란 종결 후, 각종 중국 의서와 기존 의서의 복원, 편찬 및 정리에 힘썼다. 그밖에도 한글로 된 의서인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산부인과 관련 의서인 《언해태산집요》, 기본 가정의서인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등도 집필하였다.

허준은 "동양의학의 거울"로 번역되는 의학 백과사전인 동의보감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쓰인 가장 포괄적인 의학 서적 중 하나로 여겨지며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한국 의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증상, 치료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침술, 한약, 그리고 피부나 피부 근처에 약초를 태우는 것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중국 의학 치료법인 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동의보감 외에도, 허준은 천연두 예방 접종과 의학 교육에 인체 해부학의 사용과 같은 새로운 의료 행위를 한국에 도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의학 서적을 위한 도서관인 금경각의 설립을 책임졌습니다.

A graphic element consisting of two vertical bars and a horizontal line. The two vertical bars are dark gray and positioned side-by-side. A white horizontal line is centered between them, extending slightly beyond the width of the bars.

—

**THANK YOU!**